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활용 현황 분석

An Analysis of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Utilization

김선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sa102@kcti.re.kr

Seon-a, Kim,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8년 도서관분야 국가승인통계 생성과 더불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구축 이후 10년을 맞이하여 도서관통계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도서관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및 온-나라정책연구(PRISM)를 활용하여 2008년~2018년도에 발행된 학회지와 정책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참고한 논문 95건, 정책연구보고서 39건이다.

1. 서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은 국가승인 통계인 “전국 도서관통계”의 작성과 결과를 서비스하기 위해 2008년에 구축된 웹정보원으로서, 국내 도서관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정책담당자 및 관련 연구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도서관 통계정보를 제공하며, 국민들에게는 핵심 문화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도서관 통계정보의 공유를 강화하고, 통계조사를 통합실시 하여 공신력 있는 도서관 통계 제공 및 통계의 중복생산을 방지하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초 데이터를 통해 정책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및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영향성을 측정하는 피인용수를 웹정보원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적용하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활용한 정책 및 연구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정책 연구과제와 주요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관련 분야 정책연구를 파악하기 위해 온-나라정책연구(PRISM)를 검색도구로 선정하였다. 2018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온-나라정책연구(PRISM)에서 문화체육관광 주제 검색 필드에 “도서관”을 질의어로 입력하였다. 검색기간은 2008년~2018년으로 설정한 결과 총 126건의 공개용 정책연구과제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정책연구과제 중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인용하지 않은 87건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인용된 39건의 정책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도별 추이 및 주제 분석을 하였다.

둘째, 관련 분야의 학술논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주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검색도구로 선정하였다. 2018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참고문헌 검색 필드에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libsta.go.kr”

을 질의어로 입력하였다. 검색 결과 논문 중 발행연도가 2008년-2018년인 총 95건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추이 및 주제 분석을 하였다.

<표 1> 데이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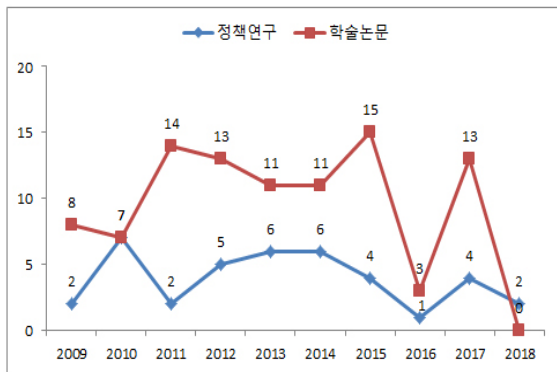
2008-2018	합계	분석데이터
PRISM	126	39
KCI	95	9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인용된 정책연구과제 및 학술논문의 주제범주를 분석하기 위해 손정표(2003)의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에 사용된 주제 범주를 참조하였다. 수집된 정책연구과제 및 학술논문의 연구명, 주제어, 개요 등을 통해 연구자가 주제범주를 부여하여 정책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3. 분석결과

3.1 발행연도별 추이

본 연구에서 수집한 정책연구과제 39건과 학술논문 95편에 대한 발행연도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피인용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피인용수

첫째,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2010년 피인용수가 7회이므로 2010년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0년간 연평균 피인용수가 4회인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검색결과 수집된 도서관 관련 정책연구과제 126건 중 39건에 인용되고 있는 현황을 보아 도서관 관련 정책연구과제의 31%에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술논문의 경우 2015년 피인용수가 15회이므로 2015년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0년간 연평균 피인용수가 10회인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최근 피인용수를 살펴보면, 2016년 피인용수가 급격히 낮아진 이후 2017년에 피인용수가 평균수준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검색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8년에 다시 피인용수가 0회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2 주제범주 분석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인용된 정책연구과제와 학술논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를 부여하여 주제범주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정책연구과제 발주 시 부여된 연구 분야를 먼저 살펴보았다.

<표 2> 정책연구과제 연구 분야

연구 분야	정책연구과제 수
도서관정책기획단 운영	21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11
문화정책	5
문화관광 행정지원	2
총 합계	39

정책연구과제의 연구 분야는 도서관정책기획단 운영이 21건으로 가장 많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문화정책, 문화관광 행정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도서관정책기획단이므로 이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연구과제의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과제명, 주제어, 개요를 토대로 연구자가 주제범주 및 세부주제를 부여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인용된 정책연구과제는 모두 도서관경영 주제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경영의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도서관경영의 세부 주제를 부여한 결과 도서관경영 일반의 정책연구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책연구과제 세부 주제

세부 주제	정책연구과제 수
도서관경영 일반	18
증장기계획수립	9
도서관 관련 법규	9
장서개발(관리)	3
총 합계	39

둘째, 학술논문의 경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인용된 학회지를 살펴보면 총 21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개의 학술지 중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JisTap, 서지학연구로 총 6개 학술지로 나타났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인용된 95편의 논문 중,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논문이 총 75편으로 분석대상 논문의 약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중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논문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학술지 현황

학술지명	논문 수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3
정보관리학회지	10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구. 정보관리연구)	4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3
인문학논총	2
청소년시설환경	2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2
교육·녹색환경연구	1
국토계획	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
디자인융복합연구(구.인포디자인이슈)	1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
문화예술교육연구	1
사회과학연구	1
서지학연구	1
한국인쇄학회지	1
한국정책연구	1
한국정책학회보	1
한국지도학회지	1
총 합계	95

학술논문의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논문명, 키워드를 토대로 연구자가 주제범주 및 세부주제를 부여하였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주제범주는 도서관경영 영역이며, 정보학, 문헌정보학 기초, 자료조직, 공공봉사,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술논문 주제 범주

주제 범주	논문 수
도서관경영	79
정보학	5
문헌정보학 기초	5
자료조직	3
공공봉사	2
기타	1

주제영역별 세부 주제 분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도서관경영 영역에서도 특히 일반경영, 건물 및 설비, 도서관 관련 법규 주제에 상대적으로 인용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문헌정보학 연구 분야에 골고루 인용되고 있으나, 도서관경영 영역에 인용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의 항목이 도서관경영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학술논문 세부 주제

주제 범주	세부 주제	논문 수
도서관 경영 (79)	일반 경영	34
	건물 및 설비	13
	도서관 관련 법규	10
	직무분석	4
	자료보존	3
	정책 및 행정	4
	인사관리	2
	상호협력	2
	장서개발(관리)	7
정보학 (5)	도서관 자동화	5
문헌정보학 기초 (5)	교육과정·교육제도	2
	연구 방법론	2
	일반 이론	1
자료조직 (3)	분류법	3
공공봉사 (2)	독서교육(지도)	1
	참고, 정보 봉사	1
기타 (1)		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활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관련 정책연구과제 및 주요 학술지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피인용수를 산출하여 국

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인용되는 연도별 추이 및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년간 정책연구과제는 연평균 4회, 학술논문은 연평균 10회의 피인용지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인용되는 정책연구과제와 학술논문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도서관경영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전국도서관통계는 도서관 기본정보 및 예산, 인적자원, 소장자료, 이용자서비스 등에 관한 데이터이다. 이러한 정보는 도서관경영 주제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도서관경영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관 분야 정책연구과제 및 학술논문의 주제 분석을 통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연구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규명한 것에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주제범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개인적인 주관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향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도서관통계의 활용성을 살펴보고, 계량정보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주제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